

예술과 과학의 만남 '매터리얼'

과학은 'Matter(문제)'를 던지고 예술은 'Real(실재)'가 된다. 과학과 예술의 접합지점에 있는 물질의 존재에 대해 예술가, 과학자, 인문학자, 의료인류학자, 철학자, 큐레이터 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과 고등과학원(이하 KIAS)이 공동 주최하는 과학과 예술에 관한 국제 융복합 심포지엄과 워크숍 '매터리얼(MatteReal)'이 23-24일 ACC 문화창조원 복합 2관과 26-27일 KIAS 1호관 1503호에서 개최된다.

이번 '매터리얼' 행사는 예술과학 융복합 콘텐츠 개발에 힘써온 ACC와 국내 과학 분야 연구 기관 최초로 초학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KIAS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물질을 통한 물질들의 세계'라는 주제로 예술가, 과학자, 인문학자, 의료인류학자, 철학자,

ACC-KIAS 공동 국제 융복합 심포지엄·워크숍

오늘부터 ACC 문화창조원·고등과학원 1호관

큐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및 실무자 19명이 참여한다. 해외 초청 연사로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반(反)물질을 연구하는 마이클 도저, 건축가이자 인터랙티브 디자이너인 쥐리, 아리스 일렉트로니카 및 재팬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에서 수상한 바 있는 예술가 드미트리 겔판트 등 7인이 참가한다.

국내 초청 연사로는 2016년 유럽입자물리연구소가 수여하는 '콜라이드 국제상'을 수상한 김윤철 작가(고등과학원 초학제프로그램 독립 연구단 연구책임자), 고등과학원 최재경 교수와

김재완 교수를 비롯해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을 창안한 KAIST의 정하웅 석좌교수, 의료인류학자인 경희대 김태우 교수 등 12인이 참여한다.

또한 행사 제목인 '매터리얼(MatteReal)'의 의미처럼 물질과 사건 '매터(Matter)'와 물질과 사건의 존재를 의미하는 '실재(Real)'에 관해 KIAS의 초학제프로그램 독립연구단 매터리얼리티(Matterality)가 지난 2년간 진행해온 물질학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도 담론을 나눈다.

이번 행사 23일 비공개 프로그램을 제외한 전 일정에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24일 ACC 문화창조원 복합 2관에서는 물질과 물질성에 관해 네 개의 세션('사물성(Thingness)', '얽힘(Entanglement)', '매터소피(Mattersophy)', '유체성(Fluidity)')으로 구성된 대담이 진행된다. 대담과 함께 우주의 입자를 주제로 한 하이브리드 랩 퍼포먼스와 미키 유이의 실험음악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26일과 27일에는 국제 심포지엄이 고등과학원에서 개최된다. 초청 연사들은 ACC에서 다룬 사물성, 얽힘, 매터소피, 유체성에 관한 현재의 논의들과 문제점들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보다 깊이 있게 다루며, 예술과 과학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물질에 관한 담론을 공유한다.

각 행사에는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연수 기자



봄의 생동하는 기운 '화전놀이'

내달 8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는 '화전놀이' 기획전을 23일부터 4월 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봄의 생동하는 기운을 표현한 남도의 젊은 예술인을 초대해 마련됐다. 기운생동(氣韻生動)의 묘리를 연구하고 있는 구례, 곡성, 남원, 함양, 장수, 광주 등 자연과 일상에서 계절의 변화를 작품 속에 표현하고 있는 10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김수현의 '레몬 여인'은 푸른빛의 아지랑이를 배경으로 새순을 잉태하고 있다. 레몬트리 위로 우유티 물줄기가 쏟아진다. 유연한 손놀림과 무심한 눈매는 또렷이 분할되어 여행자는 피안의 세계로 향한다.

꼭꼭 숨겨둔 부정(父情)을 한 울 울 수를 놓아 뚝뚝 떨어뜨린 나예심은 '붉게 물든 봄은 그렇게 빗장을 해제하고 넉넉하게 받아들여 줘'를 말하고 있다.

불구덩이 속에서 도자기 꽃을 피워낸 노신환의 '火花'은 불이 꽃이 되고, 꽃이 불이 되는 자연의 순리를 작가의 부지런한 손끝으로 헤아리고 있다.

만개한 꽃을 피우는 순간이 수행의 시작임을 알리는 박수옥의 '희망 story'는 작가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희망이며, 고독한 여행자의 길을 선뜻 나설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

셀 수없이 붙이고, 깎는 일을 반복하는 '잠

들지 않는 시간'의 소빈은 어머니의 푸근한 온기로 균형을 잡고 형상을 빚어내고 있다.

부채 자루에 서러운 매화꽃 사랑을 새긴 안태중은 부채살에 양기를 듬뿍 담아 추추추적 봄비가 내리는 섬진강변의 풍어를 토막이고 있다.

이병구의 '화니토니'에는 선으로 연결되는 작가의 마음이 새겨져 있다. 그 선 하나하나에 땅과 하늘, 능선과 바다 그리고 밤과 낮, 겨울을 지난 봄 향기가 새겨져 있다.

만다라 작가 조경옥은 자연이 주는 형형색색-무념무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그저 만다라를 그릴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 한다.

나무에 밑 채색을 하고 온갖 세상사 일들을 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복 작가는 화폭에 점점이 찍는 기법처럼 정해진 형태와 시각효과가 뚜렷하다.

채경남의 '알 수 없는 이야기'는 어느 봄날, 귀엣말을 하는 새와 꽃비에 불타오르는 소녀가 오래전 전설 같은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하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기획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회화, 도자기, 부채, 나무그림, 자수, 만다라, 한지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봄을 상찬하는 자리이며, 광주인근 지역 젊은 예술인들의 교류와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연수 기자

임실 하가유적의 가치와 활용방안

조선대박물관 오늘 임실문화원서 학술대회

조선대학교 박물관(관장 이기길)은 23일 오전 9시, 전북임실문화원 대강당에서 한국구석기학회, 임실문화원과 함께 '임실 하가유적의 문화유산 가치와 활용 방안'이란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하가유적은 구석기시대 연구의 불모지였던 전북지역에서 조선대 박물관의 지표조사로 지난 2000년 처음 발견됐다. 조선대박물관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다섯 차례 학술발굴을 진행해 중기와 후기구석기시대 문화층, 신석기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문화층이 차례로 남아있음을 밝혀냈다.

이로써 임실군과 전라북도의 역사가 늦어도 중기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됐음이 처음으로 입증됐다.

하가유적은 구석기시대의 지형이 잘 보존돼 있을 뿐 아니라, 문화층의 규모가 1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규모이고, 많은 석기제작소를 비롯해 2만 7,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돼 구석기시대의 풍부한 문화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일본열도에서 보고된 각 추상석기(모뿔석기)와 나이프형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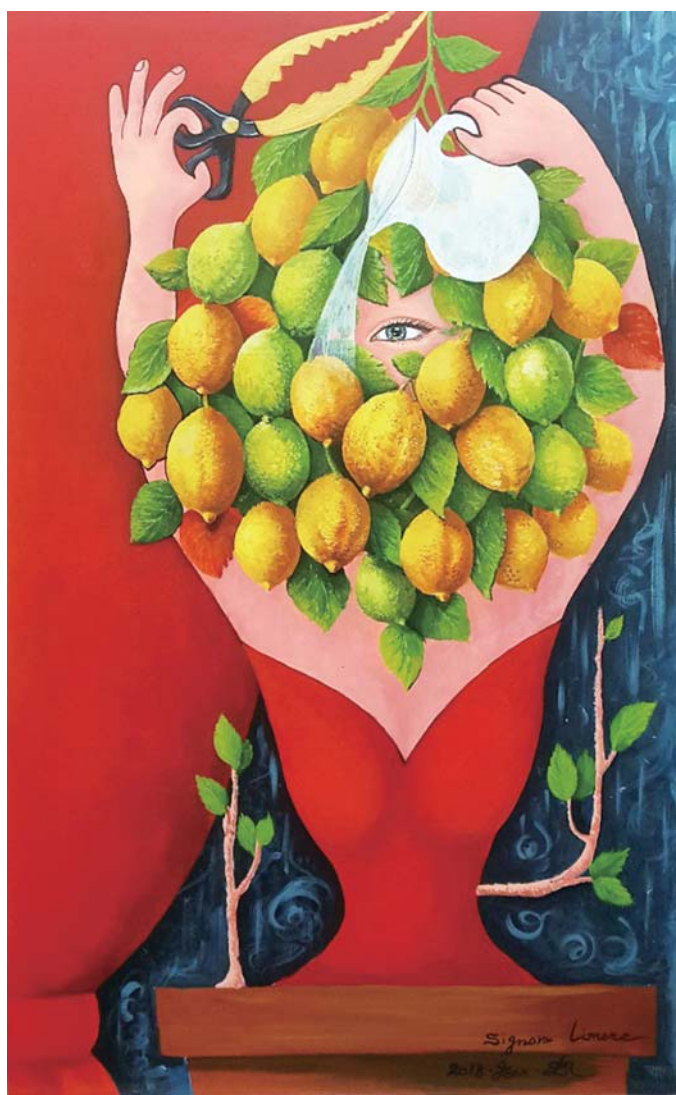
도 발견돼 구석기시대에 일본열도와 문화교류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학술자료로 평가된다.

현재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석장리유적, 전곡리유적, 수양개유적, 월평유적과 비교해 조금도 손색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유적의 탁 트인 경관은 탐방객들에게 호쾌한 인상을 선사한다.

기조강연은 윤덕향 원장(호남문화재연구원), 주제발표는 사가와 마사토시 교수(동북학원대학), 이기길 교수(조선대), 신희권 교수(서울시립대), 이한용 관장(전국선사박물관)이 진행했다.

토론 좌장은 우중운 원장(한국선사문화연구원)이 맡았으며, 토론자는 유철원장(전주문화연구원), 이민석 학예실장(정읍시립박물관), 이창승 책임조사원(호남문화재연구원), 서인선 강사(연세대), 오타니 카오르 책임조사원(한국선사문화연구원)이 맡는다.

주최 측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임실 하가유적의 학술 및 문화유산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김수현 작 '레몬 여인'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